

OECD DAC 원조효과작업반 및 집행위원회 결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산하 원조효과작업반 회의가 2009.12.2~4간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어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 아크라행동계획(AAA) 이행 촉진 및 2011년 서울 원조효과고위급회의(HLF-4) 준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동 회의에는 외교부, 기획재정부, 주OECD대표부, KOICA, 수출입은행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하여 아래와 같이 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 및 보고하였다.

I. 핵심요지

1. 주요 논의내용

파리선언 및 아크라행동계획(AAA)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개발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기존 원조 체제를 활용하는 이행계획 수립과 실질적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 제고가 필요함. 원조효과작업반의 클러스터 및 작업팀 활동이 불필요한 문서작업보다는 총체적으로 회원국 본부 및 수원국 현지에서의 원조효과 제고 노력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

2011년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회의(HLF-4)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수원국, 공여국,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폭넓은 협의를 거쳐 HLF-4 비전 및 아젠다 설정, 체계적 준비체제 수립 등의 필요성이 강조됨.

아크라 HLF-3의 경험에 비추어 HLF-4 Roadmap을 조기 수립, 투명하고 포괄적인 준비 프로세스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변화된 개발환경 하에서 파리선언 및 AAA 이행 등 원조효과 제고 노력을 종합 평가하는 한편, 개발 효과성 모색, 글로벌 원조체제 등 정치적 아젠다를 발굴하고 Post-PD 시나리오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유엔 DCF 등 주요 개발 회의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를 제고하는 것과 홍보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이에 따라 HLF-4 홍보 프레임 수립을 위해 한국, UNICEF, 가나, 아프

리카개발은행, 홍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홍보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가 구성될 예정임.

2. 대표단 원조효과작업반 회의참석 내용

대표단은 파리선언 이후의 아젠다 발굴 등을 위해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이후 HLF-4 준비회의 성격의 ‘글로벌 원조체제에 관한 워크숍’ 개최를 제안하고 회원국들의 지지와 참여를 촉구함. 이를 통해 다양한 개발주체를 포괄하는 글로벌 원조체제 모색, 변화하는 개발환경하에서 HLF의 적실성 제고, HLF-4 준비과정에 작업반 비회원국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촉진을 위한 기회 제공 기대.

파리선언 및 AAA 이행을 위해 필요한 기존 원조체제 조정, 제한된 역량 등을 고려하여 각 국가들이 benchmarking할 수 있는 상황별 구체적인 사례발굴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련 사무국 및 클러스터 작업을 촉구함.

II. 상세 내용

1. 원조효과작업반 전체회의

가. 파리선언(PD) 및 AAA 이행 촉진

개도국의 개발수요 중심 및 국별 PD/AAA 이행 지원에 초점을 맞춘 클러스터 활동 중요성 및 클러스터 활동간 연계강화 필요성이 강조됨. 단계별 AAA 이행계획 수립 및 기존 체제 활용이 필요하며, 본부와 현지 사무소간 커뮤니케이션 제고 중요. 상호 학습(peer-learning)을 촉진하고 국별, 지역별 노력을 연계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이니셔티브가 강조됨.

수원국 그룹(Caucus group)은 파리선언 및 AAA 이행관련 다음의 우선순위 제시: 원조일치(수원국 시스템 사용, 개발 정책·전략 반영 등), 원조의 예측가능성 제고, 상호책임성(mutual accountability) 및 개발성과 관리, 변화된 원조조건(conditionality) 부여(정책적 조건이 아닌 결과중심의 조건부여), 원조조화, 원조분절(aid fragmentation) 개선 및 거래비용 축소, cross-cutting 목표로서 역량개발 강조.

나. HLF-4 비전

구체적인 사례발굴을 포함한 실증적, 종합적인 원조효과 제고 노력이 평가됨. 변화된 글로벌 원조체제, 개발환경하에서 원조효과성 논의의 적실성, 역할 등이 논의되었고, 원조효과 제고 활동이 기여한 개발 효과 제시 필요성이 제기됨. 파리선언 이후의(Post-PD) 시나리오 검토 등 개발 효과성 등 정치적, 미래 지

향적 새로운 아젠다 모색검토.

다. 콜롬비아 남남협력 고위급회의

2010년 보고타 남남협력 고위급 회의는 남남협력 모범사례 발굴, 원조효과 제고 관련 개도국의 기반 강화, 향후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개최 예정.

라. 글로벌 원조체제에 관한 워크숍

당 대표부는 작업반 전체회의에서 글로벌 원조체제를 모색하고 파리선언 이후의 아젠다 발굴을 위해 2010년 하반기 또는 2011년 초에 HLF-4 준비회의 성격의 글로벌 원조체제에 관한 워크숍(Workshop on evolving global aid architecture) 개최를 제안하고 회원국들의 지지와 참여를 촉구함.

2. 원조효과작업반 집행위원회(ExCom)회의

가. 국별 AAA 이행 촉진

의장단은 수원국 현지에서의 실질적 필요, bottleneck을 파악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논의하기 위해 2개 정도의 수원국을 방문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의하는 방안 제안.

나. 예산 운영

수원국의 회의 참가 경비 지원 등 관련 원조효과작업반의 예산 부족문제에 대해 각 클러스터가 먼저 스스로 문제를 파악해서 해결방안 모색하도록 함. 클러스터 활동에 대해 공동 우선순위(collective priority)를 선정하고, 회원국이 국내 예산확보 프로세스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HLF-4 예산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이 제기됨.

다. Communication strategy

홍보전략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executive committee를 구성하여 다양한 홍보대상(정치가, 전문관료, 일반 대중)별 홍보전략을 수립기로 합의함.

라. Milestones to HLF-4

2011년 HLF-4전에 예정된 주요 개발 회의 결과를 정치적 모멘텀 제고 등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강조됨. HLF-4 개최 시기 관련 10월 중순-11월 중순에는 예산수립을 위한 국내 프로세스 문제로 수원국 각료급 참석이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마. 지역회의

원조효과에 대한 인식, 정치적 모멘텀 제고 등을 위해 파리 외 지역에서 원조효과작업반 지역회의, ExCom등을 개최하는 방안 논의함.

Ⅲ. 관찰 및 평가

우리의 DAC 가입을 평가하며 HLF-4 개최 등을 통해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한국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높은 기대가 관찰됨. 유엔, G-20 정상회의 등에서의 주요 관련 논의를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2011년 HLF-4가 국제사회 개발협력 노력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원조효과작업반의 HLF-4 Roadmap 수립에 적극 기여하는 한편 포괄적, 전략적인 우리의 HLF-4 준비계획을 조속 수립하고 범정부적 준비체제 발족 필요

파리선언 및 AAA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국가가 확대되고 있으며, 2011년 초에 파리선언 및 AAA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가 실시될 예정인 바, 주요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AAA 이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원조체제 개선 및 개발역량 강화를 시급히 추진 필요. 특히 HLF-4 개최국으로서 원조효과에 관한 정치적, 대중적 인식 제고 및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위해 홍보 집행위 (communication executive committee)를 조속 출범시키는 등 적극적 역할 수행 필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원조체제에 관한 워크숍이 HLF-4 아젠다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주요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논의 그룹을 구성, concept paper 작성 등 관련 논의를 활성화시켜야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중국, 인도 등 신흥공여국의 적극적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분야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 강화 필요.